

OPINION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데스크 칼럼

정현아

경제부장



경기 불황 속에 물가를 비롯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딱 두 가지만 요지부동이라고 한다. 아이 성적과 내 월급. 눈물겹다. 비록 오르지 않은 월급이라도 딱딱딱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지만 서민들은 다가오는 내일이 불안하다.

친구들은 이런 저런 자산 관리로 쓸쓸한 재미를 보고 있다는데 혼자만 뒤처진 느낌이다. 하루하루, 답답이 겨우 '연명'하기는 생활 때문에 즐겁자고 나갔던 모임에서 '벼락거지'의 불안과 무기력만 안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00년 초반, 돌잔치를 당연시하는 시대였다. 주변 친구들이 첫째나 둘째 아이를 한참 낳던 시기에 돌잔치 축하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었다.

당시 금값은 한 돈에 5만원 안팎. 그래도 부담 없이 돌잔치 한 개를 복주머니에 담아 건넸고, 아이의 건강과 부를 기원하면서 부모들은 돌잔치를 장롱에 곁에 모셔놓는 것이 세태였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던 금이 지난해부터 '발광',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 2월 마침내 1g에 약 10만원 대로 올라섰다. 2000년 초반 5만원 선이던 것이

나만 없다, 갖고 싶다 황금

20년 만에 두 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금값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금기야 올 2월에는 1g에 16만 8000원을 넘어섰다. 1년 사이에 무려 60%가 올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언론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금값을 증계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전쟁과 경제 압박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금값 상승을 촉발했다는 원인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자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금매수에 들어가 세계적으로 금값이 뛰기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더니 코로나 이후에는 지하 1층, 지하 2층 하면서 하루하루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언제 회복될지는 고사하고 회복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주식은 국내 경제 불황에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눈물의 손절을 한 개미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 증시, 국장을 떠나 미국 주식에 기대를 걸었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주변국,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비롯한 좌충우돌 경제와 외교 정책 때문에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 맷집이 좋은 기관투자자들은 어떻게든 견디고 있지만 소액으로 담배는 개미들이 이런 물러코스터 장세에서 발미를 못 잡고 장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다. 부동산도 주식시장도 기대안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여생할자가 채테크를 할 경우 3가지 자산에 포트폴리오(본산투자)를 하라고 충고한다. 현금성 자산과 주식, 부동산 등 크게 세 부문에 나눠서 투자

를 해야 어느 한쪽이 무너지더라도 손실이 적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이 죽을 쑤고 있고 회복시기를 가능하기 힘들어 드는 तरा 자연스럽 게 현금성 자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금값 상승 국면에서 이번에도 한국의 투자자들의 금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남달랐다.

너도나도 금 사모모기에 나서면서 국제 금가격 대비 국내 가격 차이가 무려 24%에 이를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단기·중장기 투자를 일컬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낮춰부르는 경제 분석기도 나타났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하늘을 뚫고 우주까지 날아갈 것 같은 금값이 최근 들어서는 주춤하며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시중에 금 현물이 없어 거래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단기 차익을 본 사람들이 내다 판 물량이 조금씩 돌기 시작한다는 소문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물타기에 나선 기존 보유자들도 적지 않다.

금과 같은 현물, 금 관련 예금상품, 금 관련 주식 등 금에 대한 투자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자금 규모에 맞춰 금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가져볼만한 요소이다.

채테크에 있어 만고불변의 진리 두 가지가 있다.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와 '복권을 사지 않으면 당첨될 수 없다'이다. 비트코인이나 애플주식과 같이 덩치 큰 주식을 소액으로 조금씩 사모는 개미들의 소심투자처럼 한 달에 1g, 아니 0.5g씩의 금 썰감을 사 모는, 재미를 걸었던 소소한 투자는 어떨까.

기고

김정욱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지금부터 필자는 독재자이자 학살자의 집권 과정을 적어보려 한다.

바로 히틀러이다. 히틀러는 30세에 처음 정당에 가입했다.

히틀러는 처음 정당에 가입하고 별 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뮌헨 폭동이었다.

뮌헨 폭동에서 히틀러는 추종자 2000명을 데리고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 뮌헨 폭동은 하루 만에 진압됐으며, 히틀러는 내란죄로 체포되게 된다. 체포된 히틀러는 반성은 커녕 법정에서 '폭동은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조국을 위한 애국이었다. 언제까지 배후에 숨어있는 내부의 적들을 그냥 방관할 수 있겠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발언이지만 그때 당시 독일 국민은 히틀러를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애국자로 생각했다.

그 당시 독일 국민은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혐오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의 이러한 자극적인 행보를 지지하게 됐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히틀러는 국민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바로 유대인에 대한 독일 국민의 혐오였다.

파시즘

유대인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파탄 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 독일을 전복시키려 한다는 음모론을 퍼트렸다.

이에 독일 국민의 히틀러에 대한 지지도는 더욱 높아져 갔다. 그렇게 히틀러의 나치당은 메이저 당이 됐으며, 히틀러는 전국가 스타 정치인이 돼 결국 독일의 총리가 됐다.

그 후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유대인 600만 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지금까지 필자의 히틀러에 대한 서술을 보고 필자와 같은 안목이 떠오르지 않는가? 윤석열.

윤석열은 12·3 내란사태를 일으켜놓고 반성 대신 뻔뻔하고 당당하게 조국을 위한 애국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세이브코리아가 연 집회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비상계엄은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극우 집단에선 '계엄=계몽'이라는 궤변이 화두처럼 확산했다. 금기야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호인단에서도 '계몽 간증'이 나왔다.

윤석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의 파소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계몽이란 표현에 필자는 굉장히 분노했다.

계몽의 사전적 정의는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식수준이 낮고 인습에 젖은

사람이라는 건가? 어떻게 이따위 망발을 할 수 있는 건가.

현재 극우세력들은 나치의 유대인 탄압을 연상시키는 화교 탄압을 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일부 방송인들까지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화교 프레임 씌워 맹목적인 비난과 SNS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연예인 화교 명단을 인터넷과 SNS에 유포하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화교로 몰아가고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억지 주장과 극우 인터넷 매체의 가짜뉴스가 결합하면서, 확증편향의 강화되고, 극우 세력의 집단적 결속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윤석열과 극우 세력들은 배타적 극우주의, 권위주의적 성향, 사회적 소수자 혐오, 가짜뉴스와 음모론 의존, 포퓰리즘 성향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위의 특징들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 국민들이 본인들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작태가 파시즘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한민국은 현재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국민들은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혐오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정치적 신념과 정치적 올바름을 키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극우 세력들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지금이도 반성하고 제대로 된 정치 관념을 갖길 바란다.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수하들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취재수첩

기본 방역에 충실하자

이현규

정치부 부장대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붙어 옮겨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고 식육 및 유제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공급할 수 없게 해 산업,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야생조류 및 가금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인 조류인플루엔자는 병원성에 따라 고병

원성,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는데 고병원성은 조류 내 전파력 및 폐사율이 매우 높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는 다른 감염병보다 전파성과 치명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

최근 전남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1종 가축 전염병'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부터 23일 현재까지 전남에서 구제역 감염 사례가 모두 13건 확인됐다.

전남 영암군의 한 한우농가에서 첫 발생이 확인됐고 이후 인근 농장에서 11건이 추가됐다. 이와 별개로 전남 무안군에서 1건이 나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

후 1년 10개월 만이다.

연례 불청객처럼 자주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제(저수지) 인근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야생 '삼'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와 정밀검사 등에 나섰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전국으로 퍼지면 판로는 더 막히고 소비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비껴가기 어렵다.

다행히도 전남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한 전체 사육 소 대상 백신 접종을 끝낸 상황이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확산 예방 조치도 이미 들어갔다.

그렇다고 방심은 할 수 없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기본방역부터 충실해야 한다. 잘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설

광주·전남 혼인 급증...육아환경 조성을

광주·전남 혼인 건수가 지난 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광주지역은 28년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였고 전남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는 이같은 현상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지난해 광주의 혼인 건수는 5688건으로 전년(5169건) 대비 10.0% 늘었다. 이는 1996년(1만1822건) 13.9%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28년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전남은 더 큰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7049건의 혼인건수를 기록, 1년전(6157건)보다 무려 14.5%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그동안 매년 지역내 혼인 건 수가 줄고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경고까지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다행스런 일이다.

사실 광주는 1999년까지만 해도 매년 1만 건 이상의 혼인이 치러졌다. 그러다 2000년(9557건)을 기점으로 1만건 대가 붕괴됐고 이후 7000~8000건 대를 오르 내리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1~2022년에는 아예 4000건 대(4901건·4092건)까지 추락한 것이다.

전남은 이보다 더 늦은 2012년(9827건)에 혼인 건수 1만건 대가 무너졌다. 혼인 추이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매년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2차 예코브 세대'인 1990년대생들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중반 연령대에 진입했고,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및 혼인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난해 크게 늘어난 혼인 건 수가 올해까지 이어질 지 미지수인데다 아직까지는 출생률이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혼인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말이다. 젊은 세대들이 맘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광주에 프로야구 흥풍...기아 승승장구하길

광주에 '프로야구' 흥풍이 불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22일과 23일 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 열렸던 NC다인노스와의 개막 2연전을 시작으로 144경기를 치르는 2025 신한 SOL Bank KBO 정규시즌 대장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아는 이번 개막전에 만원 관중이 몰려 '이틀 연속 관중사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을 대상으로는 압도적까지 등장했다.

또 매진 사태로 야구장을 가지 못한 팬들을 위해 CJ CGV는 광주 상무, 광주 금남로, 목포 문화광장, 순천신대, 여수 웅천 등 광주·전남 5개 지역 영화 상영관에서는 개막전을 생중계했다.

올해 KBO와 극장 생중계 협약을 맺은 CGV는 매주 일요일 2경기를 포함해 올스타전, 포스트 시즌 등 주요 경기를 극장 생중계할 예정이다.

프로 야구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 지 보여주는 셈이다.

기아가 이번 개막전에서 1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첫 날 경기에서 김도영 부상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지만 올 시즌 2년 연속 우승과 V13에 도전하는 야구팬과 호남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야구 전문가들과 다른 야구단 대다수가 올해도 빼어난 투수력과 가공할만한 타력 등 탄탄한 전력을 갖춘 기아가 우승권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그렇지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다음달부터 야구 특화 관광 상품인 '야구광 트립'을 출시, 여행사를 통해 연중 판매할 예정이다.

'야구광 트립'은 빛고를 광주의 '빛 광(光)'과 야구에 열광하는 '미칠 광(狂)'의 중의적 표현으로, '야구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이란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이 상품은 광주에 와서 야구만 보고 돌아가기 아쉬운 이들을 위해 KIA 타이거즈 홈경기가 있는 날, 경기관람 전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광주의 대표 관광지 동명동·양림동 권역, 전일빌딩245, 무등산 일원 등을 여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높은 인기로 관람권을 구하기 힘들어진 이들이 보다 손쉽게 표를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도 승승장구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친 지역민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 회 교 육 부 370-7030	논 설 실 370-7060 뉴 미디어 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지 역 사 회 부 370-7040 문 화 체 육 부 370-7234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면 편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 자 관 리 국 370-7080 서 울 지 사 02-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